

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석한

국가의 경제수준과 + 문화 여행수요 상관관계 조사

7조

201410717 유진영

201410752 정한솔

201615024 김혜주

201610656 정윤희

201780082 홍사유



저희 7조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 보고자 한 점은
과연 국가의 경제 수준은 여행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
가?를 기반으로 경제지표와 나라의 문화를 미루어 보
았을 때, 앞으로의 여행 수요에 대해 예측해보고자 했
습니다.



INDEX

발표의 목차는 이렇게
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총정
리를 하며 시사점을 제시하겠습니다.

01 서론

주제 선정 배경
가설 수립

서론에서는 앞서 말씀 드린 주제를 선정하게
된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릴 것이며, 분석 방
법에 있어 저희는 가설을 세워두고 검증하는
방법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 수립
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.

02 본론

데이터 수집
데이터 분석

본론으로 들어가, 본격적으로 어떠한 데이터
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되었는데 이를 소개하고

03 결론

결론

마지막으로 조사 분석 결과, 결론을 말씀드
리겠습니다.

04 마무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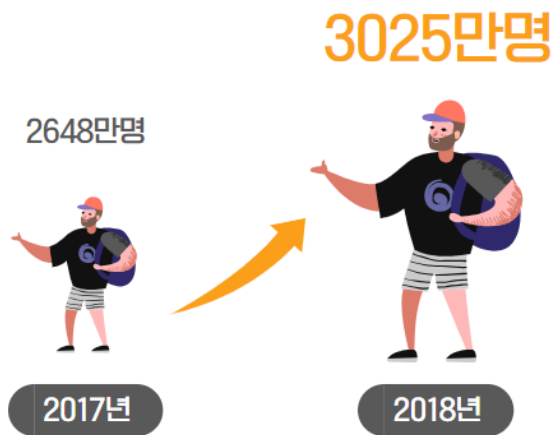
시사점
느낀점
자료 출처

01 서론

주제 선정 배경



" 워라벨 바람, 근로시간 단축... 해외여행 늘렸다. "



3025만 명

전년 대비

14.2%↑



최근 3년 간 내국인의 해외여행 시장

연평균 18.1%↑

01 서론

주제 선정 배경

주제 후보

여행지의 SNS 해시태그
및 포털 검색어 기반 데이터 분석.

근로자의 스트레스 수준과
여행수요의 상관관계 분석.

여행지 트렌드와 의료산업과의
상관관계 분석.

국가 경제성장을 및 워라벨 지향에
따른 여행 수요 전망.



결정 주제

사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
워라벨(Work-Life Balance)이라는
신조어 등장에 따라 **여행에 대한 관심 증가**,
이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국가의 **경제수준**에
따른 **여행 수요** 전망 분석.



01 서론

가설 수립



- US
- 가설 1. 국가 경제 수준 ↑ , 여행 수요·소비 ↑
- 가설 2. but 여행 수요 좋아하지 X 경제력이 높을수록 시간적 여유와 신호도 충분.
- 가설 3. 2위인 의견. 누구의 말이 더 실제와 가까울까? 많아보고자 함.

국가의 경제수준이 **높을수록**
해외여행의 수요와 소비가
증가할 것이다.





분석대상

OECD 국가 ~개국 (대한민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, 미국 등)



경제수준 지표

1인당 국민총소득, 고용인원, 실업률, 연평균 임금



분석기간

경제수준 지표 : 2015 / 국민 여행 경험률 조화 : 2011-201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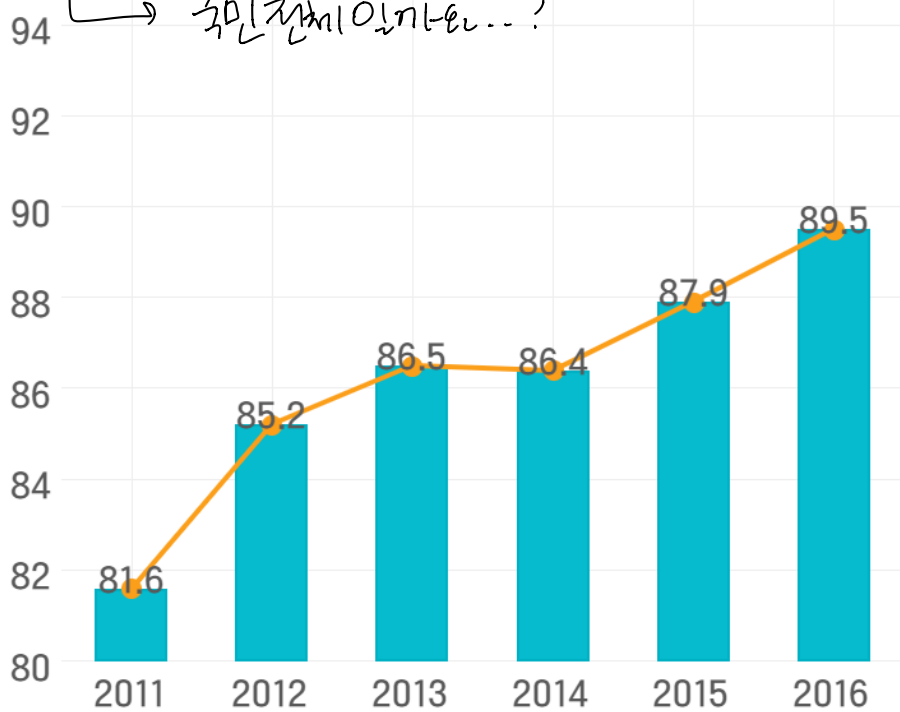
02 본론 데이터 수집



국내 포함인가요?

국민 여행 경험률 조화(2011-2016)

국민 전체인가요...?



국민들의 여행 경험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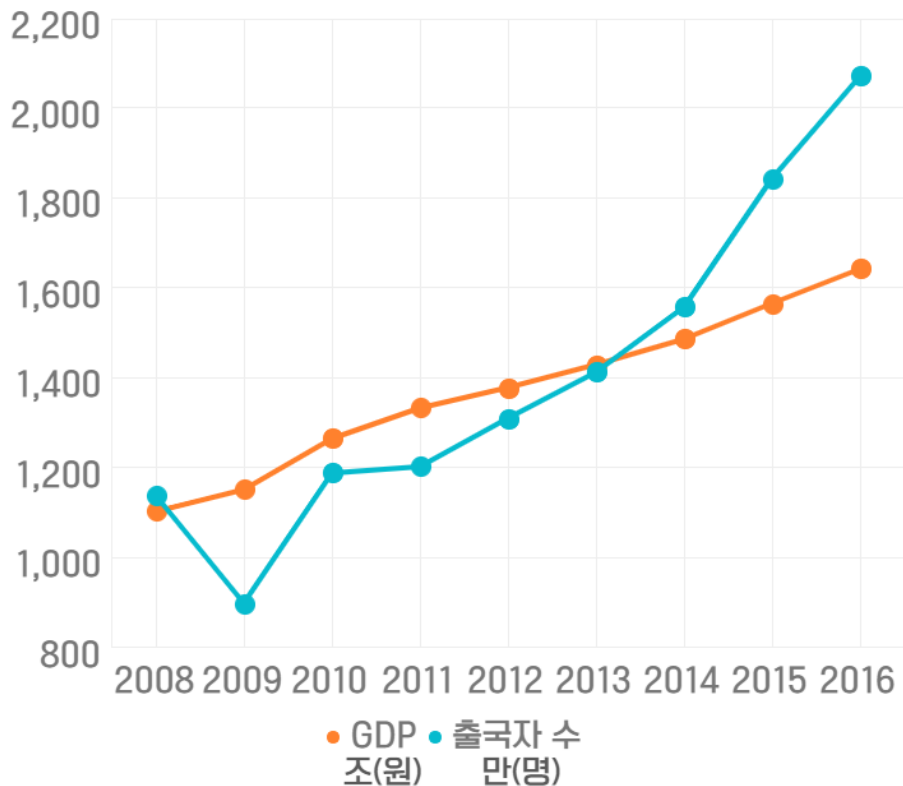
02 본론

데이터 수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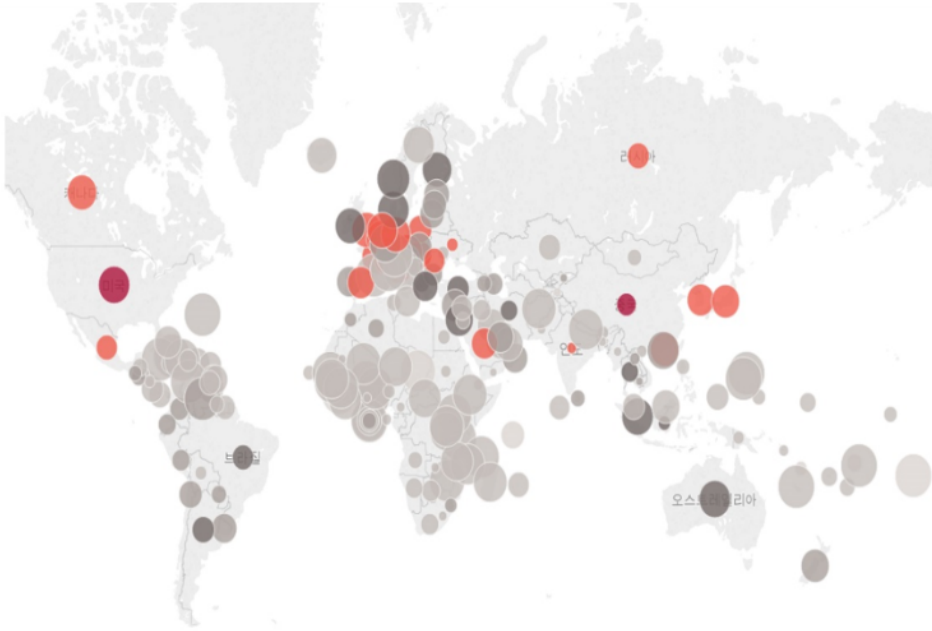


02 본론 데이터 수집

GDP와 내국인 출국자 수



1인당 국민총소득과 내국인 출입자 수(2015)



사람 : 내국인 해외여행 출국수 ↑

크기: 1인당 국민소득 (크기 ↑)

02 본론

데이터 수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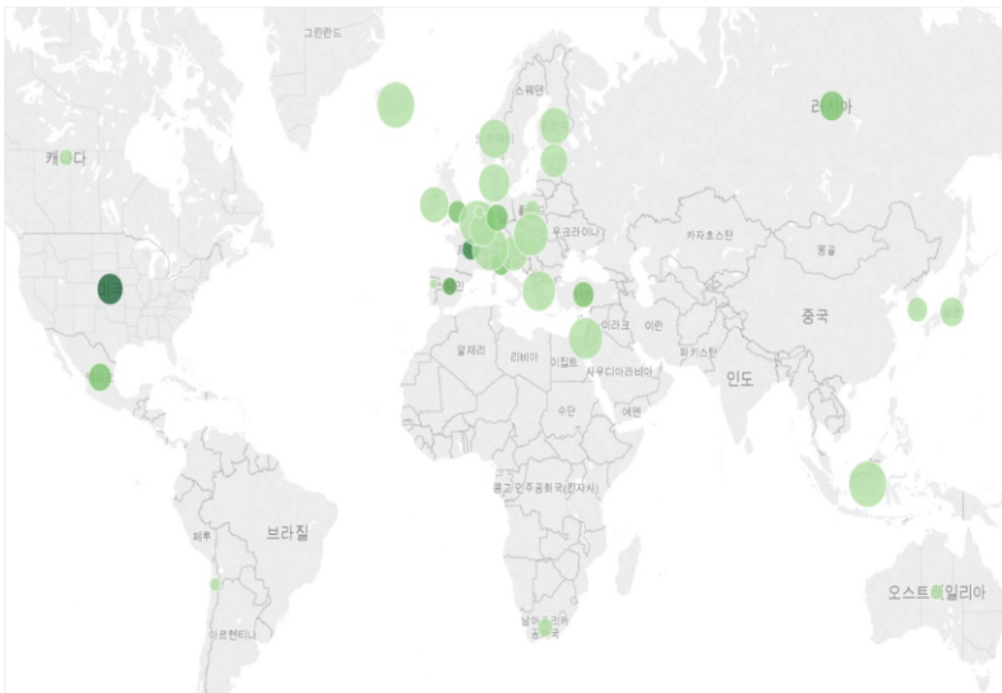
30/12/21

14. 정답과 해

총량자 수가 늘지 X



고용인원과 내국인 해외여행 출국자 수(2015)



시상: 내국인 해외여행 출국자 수

크기:

02 본론

데이터 수집

고용인원이 많아서
(사람이 많을수록 보면)
여행을 선호하지 않음으로.



실업률별 내국인 해외여행 출국자 수(2015)



대상 : 내국인 해외여행 출국자 수
 시기 : 15세 이상 근로자 실업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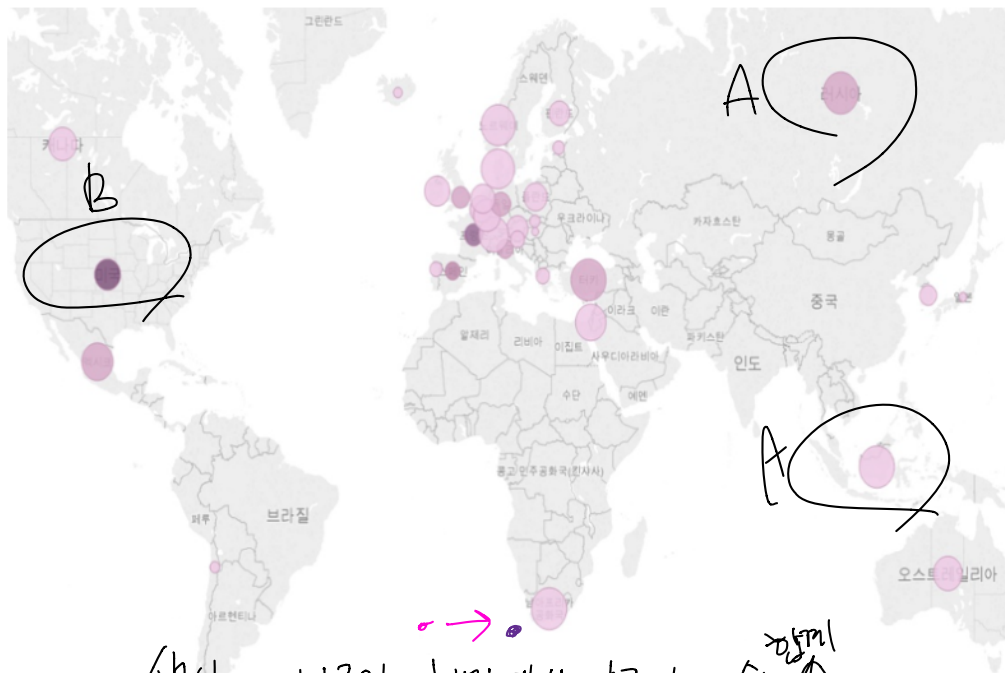
02 본론

데이터 수집

근로자 실업률 낮아져
 여행 기운도 다짐.



연평균 임금별 내국인 해외여행 출국자 수(2015)



색상: 내국인 해외여행 출국자 수 ↑

크기: 연평균임금.

02 본론

데이터 수집

A지역과같이

임금 ↑ 늘지만

B지역 임금은

상대적으로 낮음에도

1년간의 가장여행↑



03

결론

결론

기획재정부 발표

다양한 경기지표 → 고용·투자 위함

but 나아진 지표도 많음.

해상국면이라는 장안은 섣부른 것 같지만, 경제위기에 대응하기엔 무리.
⊕ 민간소비 2.1% ↑ / 1년만에 가장 높아



“ 국가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해서 해외여행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. ”

앞에서 봤고.

국가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유에 의해 여행에 대한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. (ex. 시간적 여유, 여행지의 치안 등)

→ 예 더 가까워 보인다는 결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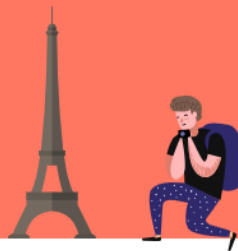
국가 정황 및 국민 삶의 질 등...

국가의 경기가 불황이더라도 워라벨 등에 의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.

⊕ 앞으로의 전망:

04 마무리 느낀 점

리서치데이팅은 생각보다 쉽다



이번 연구를 통해서
~점을 느꼈다.

이번 연구를 통해서
~점을 느꼈다.

이번 연구를 통해서
~점을 느꼈다.

이번 연구를 통해서
~점을 느꼈다.

이번 연구를 통해서
~점을 느꼈다.



정한솔



유진영



정운혜



김혜주



홍사유

04

마무리

자료 출처



통계청

한국관광공사

관광지식정보시스템

공공데이터포털

한국투자증권

한국문화관광연구원



감사합니다.